

하늘 모심

작성일 : 2009. 12. 7 (월) 새벽 00:43~02:52

작성자 : 김효정 (서울 석계 기쁨의 교회, 평화의료선교부)

사람이 하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
항상 왕을 모시고 사는 신하의 마음 줄임보다
더 할 수 있다.
사랑하는 마음은
최첨단의 예민한 심정을 나타내기에 더욱 그리하다.
하늘 심정 헤아리는 자는 진정 영적인 자이다.
내 앞에서 행하여라.
모든 시간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고
내 마음 가까이 거하여라.
사랑하면
그저 동행해주면 안심이고 평화이다.